

낙동강 문학의 탈근대성 연구

황 선 열*

차 례

- | | |
|-------------------|--------------|
| I. 서론 | 2. 시문학의 탈근대성 |
| II. 본론 | III. 결 론 |
| 1. 소설문학에 반영된 탈근대성 | |

I. 서론

현대문학에서 강을 소재로 한 시들로 신동엽의 『금강』(창작과비평사, 1989), 김용택의 <섬진강>(『꺼지지 않는 햇불로』, 창작과비평사, 1982), 이동순의 『물의 노래』(창작과비평사, 1983) 등이 있다. 신동엽의 『금강』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민중의 저항을 노래한 작품이고, 김용택의 섬진강 연작시는 섬진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이동순의 『물의 노래』는 낙동강 상류에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겪게 된 수몰민들의 비애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들 작품들은 모두 민중들의 삶이 상실되는 비극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 문학에서 강은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생존 경쟁

* 부경대학교 강사

속에 놓여진 공간이기도 하다.

이들 작품과의 상관성 속에서 ‘낙동강 문학’¹⁾을 논의할 수 있다. 근대 문학에서 낙동강 문학은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려는 당대 민중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근대문학의 연장성 속에 현대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으로 과거가 현재에 끝없는 영향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근대의 모순된 삶의 존재 방식이 현대의 삶에 연장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의 근대사를 되돌아 볼 때, 근대의 모순된 사회구조는 현대의 모순된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였다.

해방 후, 남한의 토지 정책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이것은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²⁾ 우리의 근대사는 일제의 침략과 일제의 잔재 청산이라는 두 가지 모순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근대를 지향하는 우리의 현대사는 여전히 일제의 침략이 가져온 모순된 구조를 그대로 연장해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자본주의의 계층적 위화감도 심화되고 있다.

리얼리즘 문학으로만 국한시킬 때, 근대문학이 일제에 저항한 문학이었다면, 현대문학은 일제 잔재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저항한 문학이었다. 낙동강은 우리의 근대사와 현대사에 있어서 토지와 환경을

1) 이 논문에서 ‘낙동강 문학’은 매우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 설정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낙동강 문학은 장르개념으로 볼 수도 없으며, 특정 문학의 범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여기서 낙동강 문학이라 함은 낙동강을 배경으로 하거나, 낙동강을 소재로 한 문학을 말하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을 둘러싼 문학적 성과물을 말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낙동강 문학은 배경과 소재의 지역성과 식민지 근대 이후 현대까지라는 시간성을 범주로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도 매우 많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까지의 소설, 시, 민요 몇 편을 통해서 이들 작품에 나타난 민중의식을 중심으로 탈근대성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황한식,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 장상환, 『농지개혁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만길, 김광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참조.

둘러싼 끝없는 갈등에 놓인 곳이며, 근대사의 비극과 현대사의 모순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근대로부터 지속된 낙동강을 소재로 한 문학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 한국문학의 한 방향성을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문학과 낙동강을 통해서 그곳에 반영된 민중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지향하는 탈근대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문학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³⁾ 이 글에서 살펴볼 작품들은 지금까지 낙동강을 소재로 발표된 작품들 중에서 내용과 주제에서 근대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일제강점기와 그 연속선상에 놓여진 작품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근대성과 탈근대성은 의식과 형식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의식의 측면을 중심으로 탈근대성의 의미를 살펴려 한다. 의식의 측면에서 근대성은 봉건질서가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변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근대와 탈근대의 문제는 정치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도 하지만,⁴⁾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민지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문학에서 탈근대성을 발견하기도 한다.⁵⁾ 그러나 문제는 탈근대성이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총체적 사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해도 문학에 국한시켜볼 때, 작가의 의식은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여기서 탈근대의 논의는 식민지적 근대의

3) 한국문학에서 근대의 개념을 규정짓는 일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주적 질서가 갖추어지는 시기를 중심으로 1960년대를 전후한 시기로 보기로 한다. 1960년대는 일제 강점기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연장한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시기이다. 4·19 학생의거는 현대적 민주 질서의 회복을 위한 민중들의 저항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록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민주화 운동은 무산되고 말았지만, 60년대 이후 민주적 역량은 한층 성숙되었다고 본다. 60년대 시민정신은 우리나라 근대적 시민운동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윤민재,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서울:사회문화연구소, 2000.

5)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서울:문예출판사, 1998.

박승희, 『한국시와 근대풍경』, 대구:문예미학사, 2002.

폭력과 전체화를 넘어서 근대의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고 해체하는 탈근대적 사유의 격렬한 투쟁이 자리하고 있음⁶⁾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규정하는 탈근대의식은 시민 질서에 위반되는 권력과 폭력에 맞서는 민중의식에서 그 바탕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의 문학에서 이러한 탈근대적 민중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은 술하게 많다. 이들 작품들 중에서 몇 작품을 통해서 한국문학에서 낙동강을 둘러싼 탈근대의 풍경을 조망해보는 것은 특정지역의 문학에 나타난 탈근대의 풍경이 우리 문학의 보편적 탈근대의 풍경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는 낙동강이라는 특정 지역과 이를 모델로 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일제식민지 시대로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탈근대성의 의미를 짚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작품은 이러한 탈근대의식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에는 드는 작품으로 소설은 조명희의 <낙동강>,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뒷기미나루>, 시는 김용호의 <낙동강>, 일련의 민요⁷⁾, 이동순의 연작시 『물의 노래』가 있다. 이들 작품들에 반영된 민중들의 삶과 주제의식을 통해서 탈근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6) 박승희, 앞의 책, 37쪽, 참조.

7) 여기서 다루는 민요는 문학작품 속에 반영된 것으로 한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김정한의 소설에 삽입된 민요를 중심으로 한다.

II. 본론

1. 소설문학에 반영된 탈근대성

1) 조명희의 <낙동강>

조명희⁸⁾의 <낙동강>(『조선지광』, 1927)은 일제강점기 카프문학 중 에서 낙동강을 소재로 다룬 대표작이다.⁹⁾ 이 소설은 사회주의 운동가 박성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근대 사회의 모순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낙동강을 둘러싼 식민지 시대 민중의 애환을 다룬 작품이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관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¹⁰⁾ 이는 주인공이 사회주의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할 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식민지의 현실을 타도하는 사회주의 이념의 반영작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명희의 <낙동강>은 사회주의 이념의 반영이라는 관념주의에 빠진 작품이라 아니라,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농민들의 투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벗어나려는 의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작품의 중심축이 식민지 수탈 정책을 정면으로 고발하

8) 조명희(趙明熙, 1894-1938) 소설가, 호는 포석(抱石). 충북 진천(鎭川) 출생.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도요(東洋)대학 등에서 수학했다. 희곡 『김영일의 사(死)』(1921), 『파사(婆娑)』(1923) 등 현실과 인간성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발표하였다. 1925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에 가담하였고, 1927년 대표작 『낙동강』을 발표하였다. 1928년 소련으로 망명하여 니콜스크에 살면서 대작 『만주의 빨치산』을 썼다. 1937년 소련 헌병에게 끌려가 1938년 하바로프스크 감옥에서 총살된 것으로 전한다. 시집 『봄잔디 위에서』, 소설집 『땅 속으로』가 있다.

9) 이 자료는 조명희, 『낙동강』(건설출판사, 1946)에 실린 작품을 원본으로 한다. 이 소설집에는 다섯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조명희 소설에 대한 연구는 민병기, 『포석 조명희 연구』(『사람어문학회』 6권, 1989), 노상래, 『조명희 연구(2)』(『한민족어문학회』 23권, 1993)가 있다.

10) 문홍술, 『작가와 탈근대성』, 서울:깊은샘, 1997, 중 ‘<낙동강>에 나타난 관념 편향적 창작방법-조명희’(185쪽)을 참조할 것.

고 있다는 점 때문이고, 브나로드 운동이 비록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라 해도 이 작품의 밑바탕에는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당대 농민들의 처절한 삶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 박성운은 낙동강가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고기잡이로, 그의 아버지는 농사꾼으로 일생을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노력으로 도립간이 농업학교를 졸업하였다. 그후, 한 두해 군청 농업 조수로 근무하였는데, 기미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일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그동안 모친은 돌아가고, 늙은 아버지는 집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데리고 서북간도로 떠난다. 이 때 그는 구성진 노랫말을 하나 짓는다. 서북간도에서도 일제와 중국인 지주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떠돌다가 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약 5년 동안 남북만주, 노령, 북경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은 각종 단체가 서로 파벌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었다. 그는 고향인 낙동강 하류 연안의 지방을 떼어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 선전, 조직, 투쟁이라는 계획을 짜고 농촌에 야학을 세우고, 농민교양에 힘쓴다. 그 다음에는 소작 조합을 만들어 동척의 횡포와 착취에 대하여 대항운동을 일으킨다.

그 해 여름 형평사원과 장꾼들의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을 진정시키면서 여성동맹원으로 있던 백정의 딸 로사와 친하게 되었다. 로사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나오고 사범과를 졸업하고 함경도의 보통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다. 하기 방학을 하고 고향에 머물던 그녀는 사회주의 운동을 함께 하면서 성운과 사랑을 하게 된다. 그녀는 러시아의 여성 혁명가 로사 룩셈부르크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이름을 로사로 불렀다. 그 해 가을, 이미 동척의 소유에서 일본인 가동의 명의로 넘어간 낙동강 기슭의 여러 만평되는 갈밭을 두고 쟁의가 일어났다. 이 갈밭 문제로도 당국과 싸움을 하다가 성운은 결국 선동자라는 혐의로 검사국에 넘어가 두어 달 동안 고초를 당한다. 그는 병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뒤 죽고 만다. 구슬픈 운구 행렬이 이어졌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날리는 날 로사는 구포역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열차를 탄다. 성운이가 밟던 혁명의 길을 따라 가기 위해 떠난다.

조명희 <낙동강>은 1920년대 낙동강 주변의 소외된 계층의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내용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선전, 조직, 투쟁과 그들의 동지애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프의 이념을 표방하는 관념주의 문학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소설의 전반부에 제시한 집단 민요는 단순한 관념에서 벗어나 민중들의 삶 속에 깊이 빠져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카프 문학의 추상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자는 혁명의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토지를 잃고, 서북간도로 떠난 유민들과 일제의 강제 수탈 정책을 폭로하고, 일제와의 민족적 대립 과정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소작쟁의로 빚어지는 갈등과 혁명의 동지로 만나는 주인공의 뜨거운 휴머니즘이다. 작품의 구조상, 사건의 요약적 제시와 인물의 성격 제시 등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주제는 근대적 압제를 벗어나려는 민중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낙동강의 갈밭은 농민들이 대대로 지어온 농토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 평범한 토지 소유 관념이 일제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이 과정 속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일제에 대한 저항은 토지 분배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일제는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그들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자 한다. 결국 이 소설에서 농민들의 소작쟁의는 단순히 그들의 빈궁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일제라는 거대한 제국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준다. 부당한 토지의 수탈은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궁극적으로 사회구조의 모순을 가져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전근대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인물의 탈근대성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의 갈밭은 그들의 생존 현장이고, 이 땅에 대한 몰수는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 공간은 생존을 위한 삶의 터전이

다. 낙동강은 일제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젖줄이고, 삶의 본향(本郷)이다. 말없이 흘러가는 낙동강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있었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삶은 지속되어 왔다.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던 성운이가 마지막으로 투쟁의 공간으로 삼은 곳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고향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우리 민족의 살아가야 할 마지막 삶의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제시해주는 곳이다. 그곳은 우리 민족이 되찾아야 할 생존의 공간이었다. 사회주의 이념을 넘어서 민중의 생존권이 달린 곳이 낙동강의 갈밭이었다. 그곳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이었고, 어느 순간에 그 공간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투쟁공간이 되었다. 이 공간이야말로 전근대적 의식을 극복하려는 탈근대성의 공간인 것이다.

2)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뫓기미나루>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와 <뫓기미나루>는 낙동강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 중에서 일제강점기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의 초기 소설인 <항진기>(『조선일보』, 1937), <옥심어>(『조선일보』, 1937) 등은 낙동강 주위에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수라도>도 낙동강 연안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배경과 주제의식에서 낙동강의 주변 삶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모래톱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60년대까지 연결되어 있으면서 공간적 배경이 되는 조마이섬은 낙동강 하구의 모래톱이다. 또한, 주제면에서 이 소설은 이 섬을 둘러싼 근대의 구조적 모순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소설 <뫓기미나루>는 낙동강 하류의 뫓기미 나루를 배경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도 <모래톱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배경과 주제면에서 탈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 김정한의 소설 선집 중에서 직접 낙동강을 주제로 한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탈근대성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소설 <모래톱 이야기>

<모래톱 이야기>(『문학』, 1966)는 조마이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삶의 애절함과 비극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낙동강 하류의 외떨어진 모래톱 조마이섬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로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 수탈 당해온 민중들의 애환을 재현하고 있다. 건우네는 대대로 조마이섬에 살아오면서도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압제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해방이 되어서는 나환자의 강제 이주지역이 되고, 그 후에는 권력자들에게 넘어가면서 영원히 그 섬을 떠나야 하는 운명에 놓이고 말았다. 이러한 조마이섬의 불행과 민중들의 땅에 대한 원한은 갈발새 영감의 살인행위로 극대화되고 있다.

K중학 교사였던 ‘나’는 나룻배 통학생인 건우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가정방문을 하기 위한 써낸 글에서 건우가 살고 있는 섬이 실제 주민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정방문차 그 조마이섬으로 찾아간 날, 깔끔한 집안 분위기와 예절바른 건우 어머니의 태도에서 범상한 집안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다. 거기서 ‘나’는 건우의 일기를 통해 그 섬에 얽힌 역사와 현재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된다.

주머니처럼 생긴 조마이섬은 일제 시대에도 동척의 소유였고 광복 후에는 나환자 수용소로 변했다. 그것을 반대하던 윤춘삼은 ‘빨갱이’ 누명을 쓰기도 하였다. 그 후 어떤 국회 의원이 간척 사업을 한답시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 논밭은 섬사람들과 무관하게 소유자가 바뀌고 있었다. 오래 전에 유배당한 선비 가문의 후손이고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 건우네는 어느날, 자기 땅이 없어지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건우의 아버지는 육이오 때 전사했고, 삼촌은 삼치잡이를 나갔다가 죽었다. 어부인 할아버지 갈발새 영감의 몇 푼 벌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육군 특무대에서 사상범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윤춘삼을 만난다. 그를 통해 갈발새 영감을 만나면서 조마이섬의 내력과 그들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다.

그 해 처서(處暑) 무렵, 낙동강 하류에 불어난 홍수 때문에 섬은 위기를 맞는다. 독을 허물지 않으면 섬 전체가 위험하여 주민들은 독을 피해

친다. 이때 독을 쌓아 섬 전체를 집어삼키려던 유력자의 하수인들이 방해한다. 화가 치민 갈밭새 영감은 그중 한 명을 탁류에 집어던지고 만다. 결국, 노인은 살인죄로 투옥된다. 2학기가 되었으나 건우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다. 황폐한 모래톱 조마이섬은 군대가 정지(整地)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건우네의 기구한 사연은 일제강점기 이후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조마이섬 주민들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처럼, 우리의 근대사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모순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시작하는 타율적인 불평등이었지만, 해방 후 일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계층 간의 갈등을 겪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삶의 터전을 유린한 토지 정책은 근대사의 비극이면서 농민들의 삶의 본향을 빼앗는 불행한 일이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았으면서도 또다른 식민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토지의 소유는 삶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다. 일제강점기에 이식된 부당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극복은 근대문학이 직면한 궁극적인 문제였다. 일제강점기 지식인이 자괴감과 허무의식에 빠져든 것도 거대한 자본의 논리와 구조적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 때문이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치열한 생존 문제와 관련한 토지의 부당한 강탈은 일제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낙동강 하구의 조마이섬은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근대사의 공간이며, 민중들의 고통을 안고 있는 비극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우리의 왜곡된 근대사의 모순을 드러내는 축소된 공간이다. 건우네의 비극은 낙동강 지역의 농민들이 겪었던 비극적 체험의 전형이었다. 일제 강점기와 그 연장선상에 놓여진 <모래톱 이야기>는 낙동강과 더불어 살아온 농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과 근대사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탈근대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② 소설 <뒤틀기미나루>

<뒤틀기미나루>(『창작과비평사』, 1969)는 낙동강 하류에서 3대째 뱃사공을 하는 박노인의 가족이야기이다. 박노인은 일찍 아내를 잃고 외아들 춘식과 함께 살아간다. 가난하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었다. 박노인은 대동아 전쟁 때 춘식이를 징용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땅을 죄다 판 이후로 가난한 뱃사공으로 살게 되었다. 그것은 해방이 되어서도 여전했다. 그러나 나이 어린 며느리 속독이가 들어오고 난 후 제법 살림이 일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게 된다. 박노인은 일흔 나이에 손자 칠손이까지 얻어서 행복한 여생을 즐긴다.

어느 날, 밤에 찾아온 사람들이 춘식을 협박하여 강 건너편으로 건너 가려던 중, 춘식은 뒤쫓아 온 사람들의 총탄에 맞아서 물에 빠져 실종된다. 그 일을 계기로 춘식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고 만다. 불온한 사람을 태워주려고 했던 것을 의심한 기관원들은 남아있는 박노인과 속독이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고, 수시로 감시를 한다. 춘식이가 실종되고 난 뒤에 건너편 방앗간 주인과 다른 사람들이 속독이에게 추파를 보내고 있었다. 그 해 추석날, 속독이는 그의 집을 찾아온 감시원 한 명에게 선상에서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순간에 속독이는 그 사람을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만다. 속독이는 살인죄로 구속되고, 박노인은 뒷산에 목매달아 죽는다.

이 소설은 삼랑진에 있는 실제 지명 뒤틀기미나루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다.¹¹⁾ 낙동강 하류의 나루터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뱃사공 박춘식

11) 뒤틀기미나루는 삼랑진 상부마을에 있는 나루터이다. 상부마을은 응천강(凝川江)과 낙동강 물이 합류하는 하류의 모서리에 있는 부락인데, 마을 앞에는 백사장이 넓다. 옛날 후조창(後漕倉)이 있을 때는 매우 번창했던 곳이다. 이 곳에 있는 뒤틀기미(後浦山)는 상부와 거족 부락 사이 갯가에 있는 작은 부락이다. 뒤틀기미란 뒤틀 쪽 갯가에 있는 뒤틀라는 뜻인데 부락의 북쪽 산등성이를 가리킨다. 옛날 후조창에서 보면 뒤틀 쪽 갯가에 위치하고 산아래 쪽에 있다고 하여 생긴 지명으로 뒤틀개뒀(後浦山)에서 온 말이다. 언덕 위에 여흥 민씨의 재사인 오우정(五友亭)이 있으므로 오우정이라는 지명으로도 통하고 있으며, 아랫쪽 나루터를 뒤틀기나

을 통해서 사회구조의 모순이 가져오는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권력자의 폭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힘없는 백성들의 기막힌 억압의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사회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순박하게 살아가던 행복한 가정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던 사건으로 해서 몰락해버리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묵시적인 폭력과 구조적 모순에 희생당하는 민중들의 처절한 삶을 낙동강가의 가난하지만 순박한 박춘식 일가를 통해서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춘식이네 일가족의 불행한 삶은 당대 우리 민중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체험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 이후 자행된 일제의 수탈과 해방 후 구조적 모순에 여지없이 짓밟히고 만 민중들의 한은 커다랗게 열린 채 뒤집힌 눈으로 나루터를 바라보는 박노인의 죽음으로 상징되고 있으며, 목매달아 죽은 후에도 입을 꼭 다물고 죽어간 박노인은 내면적 슬픔으로 승화하는 민중들의 울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울분의 바탕에는 전근대적인 질서와 폭압의 논리에 저항하려는 민중들의 각성이 반영되어 있다.

3) 소설문학의 탈근대성

조명희의 <낙동강>,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뒤틀기미 나루>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의식은 소외된 민중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는 권력의 횡포와 이에 맞서는 저항정신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에서 성운과 로시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들이지만, 그 출신은 뱃사공의 아들과 백정 출신으로 소외된 계층이다. <모래톱이야기>와 <뒤틀기미 나루>의 갈밭새 영감과 박춘식은 낙동강에 뿌리를 두고 살아온 소외된 계층이다. 이들은 모두 순박하고, 꾸밈이 없는 인물들로서 근대의 질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다. 이들의 가족사는 낙동강 유역에 살아가는 민중들의 비극적 체험이며, 소외된 민중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루라고 한다(밀양시 홈페이지 참조, <http://www.miryang.gyeongnam.kr>).

그리고 이들의 저항은 근대사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며, 이들의 투쟁은 일제 강점기의 왜곡된 근대사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중들의 순박한 저항방식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근대 문학과 낙동강은 필연적으로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 저항정신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근대문학에 반영된 낙동강은 거대한 지배논리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공간이었다. 이 투쟁의 공간에서 폭압적 질서에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낙동강을 둘러싼 민중들의 저항은 늘 전망이 부재한 채로 남아있었다.

이 세 작품의 현실 대응 방식을 구조화하여 살펴보면, 계층간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명희의 <낙동강>은 성운과 로사에 대립되는 곳에 일본 제국주의가 놓여 있고,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는 윤춘삼, 갈밭새 영감에 대립되는 곳에 자본주의와 해방 후 국가의 권력이 놓여 있다. 그리고 <뒷기미 나루>는 박춘식 가족과 대립되는 곳에 거대한 국가권력의 횡포가 있다. 1920년대의 계층간의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조명희의 <낙동강>이라면, 이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놓여있는 1960년대 계층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이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와 <뒷기미 나루>이다. 계층간의 갈등과 모순된 근대의 질서는 끝없는 질곡의 상태로 현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문학에서 낙동강은 모순된 구조 속에 살아가는 민중들이 그들의 본향을 찾기 위해 끝없이 싸운 탈근대성의 공간이었다.

2. 시문학의 탈근대성

1) 김용호의 <낙동강>

김용호¹²⁾의 <낙동강>(『사해공론』, 1938)은 낙동강의 어느 마을을 배

12) 김용호(1912-1973) 경남 마산 출생. 호는 학산(鶴山)·추강(秋江). 1941년 일본 메이지대 법과 졸업. 1930년 《동아일보》에 시 <춘원(春怨)>, <선언> 등을

경으로 삶의 터전 상실과 그 전망을 노래한 연작시이다.¹³⁾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서린 낙동강을 배경으로 실향민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시 <낙동강>은 해방 전 그의 작품 경향인 현실주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름다운 낙동강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기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근대 사회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상실하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인 현실이 서사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우선 이 시는 서사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의 형식이 드러나지 못하였고, 감탄사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 시는 내용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적 흐름에 따라 과거-현재-미래의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연작시 1은 과거의 회상으로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을, 2-6까지는 현재의 상황으로 토지 수탈과 가난한 현실의 상황을, 7-9는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을 희망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은 낙동강변 마을에 살았던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실향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으며, 2-6까지는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과 춘궁기를 맞으면서 더욱 어려운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토지를 빼앗기고 고향이라는 뿌리를 잃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순박한 사람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현실 등을 시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실 속에서 초조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절망을 노래하고 있다. 7-9까지는 절망의 구렁이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신명과 기쁨의

발표한 바 있으며, 1935년에 도일, 같은 해 노자영(盧子泳)이 발행하는 <신인문학(新人文學)>지에 시 <첫여름 밤에 귀를 기울이다>를 발표하고, 1938년 실향의 아픔을 담은 장시 <낙동강>을 발표하였다. 1941년에 첫시집 『향연(饗宴)』을 도쿄에서 간행, 1943년에는 시집 『부동항(不凍港)』을 발표하였다.

13) 이 자료는 엄형섭, 『한국시사 자료집성 20-시집편』(태학사, 1983)에 실린 작품으로 한다. 원본은 김용호, 이설주 편, 『현대시인선집 상』(문성당, 1954)이다.

날이 올 것이라는 신념을 다지고 있다. 고향을 등진 사람들은 북쪽으로 떠나고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날이 오는 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낙동강은 아름다운 요람과 그리운 자장가처럼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 낙동강의 평화로운 마을의 비극을 통해서 근대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드러내고 있다. 낙동강의 공동체 마을이 해체되고 흩어져야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가 몰고 온 근대 사회의 불행한 유산이었다. 삶의 터전이 상실되고 따뜻한 고향 마을이 붕괴되는 과정은 낙동강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근대 사회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은 마음의 고향이었고, 그 고향의 해체는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당대 사회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실향민의 아픔은 근대 사회의 비극적 세계관과도 같은 것이다.

앞 집 영이와 풀싸움하면 그 언덕에는
언제나 우리들의 꿈을 채우던
황혼의 보금자리가 비좁게 따뜻하였고

뿔마루처럼 올라 다니던
동리어구--- 전설의 할무니
세 아람이나 되는 은행나무엔
우리들의 콧물이 마를 사이가 없었다

하루 원종일 별거숭이 폭군이 되어 뛰놀 때
너는 우리들 물장구 동무가 되어 주었고
봄을 한 아람 덩북 물고 온 제비들이
네 잔등을 사-알살 간지러며 날 땀
아버지의 배를 몰아
삼신산 불로초가 있다는 건너 산에
약초를 캐러 갔었다
'용 못된 강철이'가 산다는 그 바위 밑은

언제나 우리들의 무서움이 잠긴 곳이었고
 돌멩이로 며칠을 똑딱거리려 판
 그 바위의 비투러진 내 이름 석자는
 지금 생각하면
 고향에 남긴 나의 단 하나의 소유였었다

- <낙동강 1>부분

연작시 <낙동강>의 첫 부분이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낙동강변의 고향 마을의 정경이 아른하게 묘사되고 있다. 칠백리 굽이치는 낙동강 변 어느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회상의 장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대 농촌 사회의 풍경은 순박하고 꾸밈없이 맑은 삶의 공동체였다. 이곳은 어린 시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 마을의 정경이기도 하다. 일본 제국주의가 몰고 온 기형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낙동강은 ‘황혼의 보금자리가 비좁게 따듯한’ 공간이었고, ‘원종일 벌거숭이 폭군’이 되어 뛰어 놀아도 동무가 되어주었던 공간이었다. 낙동강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영이와 뛰어놀던 언덕, 동리 어구의 은행나무, 하루종일 물장구치면서 놀던 곳, 아버지의 배를 몰고 건너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던 곳들이 근대 이전의 낙동강의 풍경이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강한 삶의 터전이었다. 순박하고, 꾸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뜻한 생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강’이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사라졌다. 어떠한 자연의 재앙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그들의 삶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하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추억은 사라지고, 돌멩이로 새겨놓은 비투러진 이름 석자만 남아있다. 춘궁기의 어려움도 함께 하고, 피곤함과 배고픔이 가시발길처럼 얽혀있는 곳, 경이와 동경의 대상이었던 읍내에 붉은 기, 흰기가 날리더니, ‘어느새 새끼 쇠줄이 논바닥에 들어 눕고 / 흙구루마는 영이와 풀 싸움하던 그 언덕을 짓밟고’ 말았다.

우리들은 삶의 고달픈 행로의 첫 걸음을
 지계에 걸머지고
 마을 뒷산을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이 촉초-기이 올라 붙은
 포푸라 나무 가지로 끊어 만든
 우리들의 쌍나팔- 피리가
 순이들 썬나물 대나물 썩들을 캐는
 산기슭을 헤쳐지나
 머-르리 마을을 헤엄쳐 내려 갈 때
 보리 밭 두덕 얼룩송아지 “엄매!”하는 소리는
 마을의 춘궁을 또한번 알리었다

(……중략……)

이때부터 너는 하나의 슬픔을 안고 흘러갔다

- <낙동강 3>부분

가난한 삶의 공간으로 전락한 황량한 낙동강은 ‘호박넝쿨 시들 듯 시들어’ 갔다. 영원한 희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던 낙동강은 절망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밀물과 밀물의 부닥침 속에도’ 절망을 하지 않았던 그들은 ‘최후까지 지켜 줄 단 하나의 희망’으로 생각했던 낙동강이었다. 그러나 낙동강은 어느새 ‘노아의 주구’가 되고, ‘폭군 네로’가 되어 있었다. 이 시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당대 사회의 폭압적 상황이 그들을 내몰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극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공간으로 회복하려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은 사무치는 원한과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또 다시 털고 일어 설
 하나의 신념을 찾았다

구름은 한갓 하늘을 떠도는 ‘유랑민’은 아니었다
그는 희망과 추구의
생명의 깃발을 싣고
설계하고 건축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궤하고
또 다시 탐구의 이동을 꺾히는
아! 지혜롭고 자유스런
선명할 하나의 생명이 아니었더냐

- <낙동강 7>부분

삼월에도 심진 날
흥부에게 줄 행복의 씨를 물고
제비가 틀림없이 이 마을을 찾던 그 때는 어느 때며
‘용 못된 강철이’가 산다는 그 바위가
우리들께 영원을 이야기한 때는 그 어느 때냐?

- <낙동강 9>부분

시 <낙동강>은 삶의 터전을 상실한 공간에서 희망과 생명의 공간으로 영원히 남을 것을 믿고 있다. 근대의 폭압적 상황에서 행복의 씨앗이 움트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가는 마을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 시는 절망의 변주곡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터전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합주곡을 노래하고 있다. 그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념을 갖는 것은 풀처럼 건강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삶의 방식은 강물이 말없이 흘러가듯이 도도히 흘러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함께 살아갈 공동체의 공간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한다.

시 <낙동강>은 상실한 것들을 회복하려는 건강한 생명의 노래이다. 그것은 근대의 질서에 대한 묵시적 저항의 형태이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이다. 근대의 비극적 세계관이 그들을 압제와 폭력의

공간으로 몰아넣어도 절망하지 않고 영원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강물처럼, 본질적 공간에 대한 확신과 역사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과 시적 의미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대의 구조적 절망하지 않는 희망의 노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근대적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탈근대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2) 삼입 민요

민요는 근대의 비극적 세계를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낙동강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불려진 민요에는 힘든 노동의 삶과 억압된 삶을 한탄하면서 함께 그 한을 극복하려는 공동체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의 모순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끈질기게 그들의 생활의 터전을 일구어낸 생명의 소리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요는 전통사회의 생활 방식 속에서 자생하여 민중이 즐겨 부르는 과정을 통하여 전승된 노래로서 그들의 삶의 애환과 바람 등이 표현된 소리이다.¹⁴⁾ 민요는 사회적 기능면에서 일소리(勞動謠), 굿소리(儀禮謠), 놀이소리(遊戱謠), 애들소리(童謠) 등으로 나누는데, 이들은 모두 민중들의 생활 방식과 당대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민요는 근대의 억압적 생활 방식을 극복하는 가장 진솔한 민중들의 저항 형태이기도 하다.

낙동강 지역의 민요는 근대의 모순을 민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의 한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민요는 조명희의 <낙동강>과 김정환의 소설에도 삼입 민요로 사용되고 있다. 삼입 민요를 사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민중들의 삶의 방식과 근대의 공동체 삶을 지켜나간 하나의 공감대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요는 민중들의

14) 김택규, 『경상북도 민요의 문화·사회적 기능』(한국민요대전 CD해설집)

뚜렷한 역사관과 민족관이 나타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요는 민중들의 신명과 한이 동시에 표출된 근대문학의 새로운 저항 형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댕아내여
먼데보니 달일레라
절에보니 처잘레라

그 처자 자는방에
숨소리가 들일레라
홍들바시 오라버님
거짓말씀 말아주소

동남풍이 달이부니
풍지떠는 소릴레라
죽고지라 죽고지라
밍지수건 목을매고

자는듯이 죽고지라
엄마 우리 엄마
요내나는 죽겨들랑
앞산에도 묻지마고

뒷산에도 묻지마고
연대밭에 묻어주소
연대꽃이 피겨덜랑
날만이기 돌아보소

눈이오마 쓸어주고
비가오마 덮어주소

경북 고령 지방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민요인데, 어느 시골 처녀의 오빠가 처녀 방에서 숨소리가 들이 나더라는 헛소문을 퍼뜨리자 처녀는 숨소리가 아니라 동남풍에 문풍지 떠는 소리였다고 한다. 그러나 모함을 당한 것이 억울해 목매달아 죽어 버린다는 내용이다. 부당하게 모함을 당한 일을 풍자한 이 노래는 간단하지만,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는 민중들의 울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처녀라는 연약한 여성성과 오빠라는 혈육의 배반성이 주는 아이러니가 해학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노래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 민요이기 하지만, 아이들에게 널리 불렸고, 남자들이 앉아서 하는 일을 하면서 흥얼거리기도 했던 민요이다. 단순히 처녀의 죽음을 미화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현실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이것은 소극적인 현실 저항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울엄마야 울엄마야
 산높고 골깊은데
 월출동령에 달이솟고
 일락서산에 해떨어지고
 치받아보니 만학천봉이고
 널바다보니 칭암절백
 울엄마는 어데가고
 날찾을줄 모르는고

- <나무꾼신세타령>부분¹⁶⁾

남자들이 나무를 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는 자신을 찾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나무꾼의 신세타령은

15) 고령 지역의 전승 민요(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김분희(66세)/1993, MBC 한국민요대전).

16) 경남 양산 지역의 전승 민요(경남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김말수(75세)/1992, MBC 한국민요대전)

대구와 구미 지역에도 전승되고 있는데, 그 노래에는 농사꾼으로 태어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민요는 개인적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단적인 노동요로 불려졌다. 나무꾼의 신세타령은 비교적 많은 지역에 전승되는 민요이다. 이것은 농업의 몰락과 가난한 농촌 생활에서 극복하기 위한 민중들의 저항 방식이었다.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와 나무를 하면서도 그리움의 대상을 찾아서 자신의 신세를 토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민요를 통한 서민들의 한을 풀어내는 저항의 방법은 소설의 삽입민요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조명희의 <낙동강>에서는 소설의 서두 부분에 삽입되어 주인공 성운의 죽음을 더욱 비장하게 하고, 김정환의 소설에서는 소외당한 계층의 울분과 한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봄마다 봄마다
 불어 내리는 낙동강 물
 구포(龜浦)벌에 이르러
 넘쳐 넘쳐흐르네
 흐르네 에헤야

철렁철렁 넘친 물
 들로 별로 퍼지면
 만 목숨 만만 목숨의
 젓이 된다네
 젓이 된다네 에헤야

이 벌이 열리고
 이 강물이 흐를제
 그 시절부터
 이 젓 먹고 자라 왔네

자라 왔네 에헤야

천 년을 산, 만 년을 산
 낙동강! 낙동강!
 하늘가에 가니들
 꿈에나 잊을소냐
 이칠소냐 아하야¹⁷⁾

조명희의 <낙동강>에서 주인공 성운이 병보석으로 풀려나 동지들과 함께 낙동강을 건너면서 옛날에 즐겨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 삽입 민요이다. 낙동강을 끼고 살았던 민중들의 애환과 낙동강에 대한 사랑이 애절하게 드러나 있다. 낙동강은 만백성의 젖줄이었고,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일구어 온 터전이었다. 이 부분은 주인공 성운이가 투쟁의 공간으로 삼았던 낙동강의 갈밭이 빼앗긴데 대한 울분을 표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거대한 근대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지만,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곳이 낙동강이었다. 그곳은 어머니의 품 속 같은 곳이었다. 성운과 그 동지들은 낙동강을 상실한 뼈아픈 슬픔을 노랫가락에 의탁하여 한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김정환의 소설에 나타난 삽입 민요도 동일한 영향관계에 놓여있다. 그의 소설 속의 많은 인물들은 민요를 함께 부르면서 그들의 울분을 풀어내고 있다. 먼저, <사하촌>에서 가뭄으로 물싸움이 일어나는데, 성동리 고서방은 보광리 사람과 주먹다짐을 하게 되고, 성동리 마을 청년인 들깨와 철한이는 물꼬 싸움을 하다가 서로 힘을 합쳐 보광리의 물꼬를 트고 봇물을 성동리 쪽으로 흘려 보낸다. 이 일을 고서방의 소행으로 추측하고 주재소에 넘겨버린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난 다음날, 성동리 마을 사람들은 꿩는 폭양 밑에서 상사뒤야 소리를 매기며 논매미를 매 나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17) 조명희, 『낙동강』(건설출판사, 1946), 7-8쪽.

한 포기가 열에 벌여,
----에이여허 상사뒤야,
한 자국에 열 말씩만,
----에이여허 상사뒤야,¹⁸⁾

이 노래는 소설 속의 배경인 성동리 농꾼들이 보광리 앞들에서 쇠다리 주사댁 논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3인칭 서술자는 “그들은 기계와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앞잡이의 노래에 맞춰서 ‘에이여허 상사뒤야’를, 속이 시원해지는 듯이 가슴이 벌어지게 내뿜는 것쯤일까”라고 한다. 이 노래를 통해서 농꾼들의 애환을 풀어주고 억압적인 현실을 내면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 속의 인물들은 이 집단적인 민요를 통해서 그들의 울분을 삭아내고 있었다.

먼동이 트면 곧 죽고 싶은 마음
저녁밥 먹고 나니 천년이나 살고 싶네¹⁹⁾

넷가에 나와 부르는 쇠다리 주사댁 머슴 강도령의 독백적인 노래이다. 더위를 피해 넷가에 나와 반석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노래를 부른다. 당대 민중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노랫말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일을 하러 가는 아침나절은 힘들고 죽을 지경이지만, 저녁밥을 먹고 쉬는 동안에는 천년이나 살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꾸밈없는 민중들의 진실한 삶의 방식이며, 현실을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저항 방법이다.

지리산천 가리 갈가마귀야,
이내 속 그 뉘 알꼬……!²⁰⁾

18) 『김정한 소설 선집-증보판』(창작과비평사, 1983), 17쪽, 다음부터 인용 부분은 『선집』으로 통일하고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19) 『선집』, 20쪽.

추석이 끝난 뒤, 성동리 사람들은 뒷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간다. 남자들은 지계를 지고, 여자들은 바구니를 들고 보광사의 대사봉 중턱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다. 그해는 가뭄 탓으로 버섯조차 귀했다. 썩어빠진 버섯을 따고 있는데, 멀리서 초군들의 노래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이 민요는 앞에서 인용한 나무꾼 신세타령의 한 부분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옥심이>에서 백암사에 부역을 나온 소작인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백암사로 향하는 도로를 놓기 위해 동원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애처로운 아리랑을 부른다.

바람이 불려거든 지전 바람이 불고
 풍년이 지려거든 처저 풍년이 지거라²¹⁾

짧은 부분만 인용되었지만, 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그들의 한을 토로하고 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근대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민중들의 바람이 잘 표현되고 있다. 풍년에 대한 소망과 이를 이루기 위한 민중들의 소박한 소망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것이다.

<항진기(抗進記)>에서 소작인들은 모두 지주들의 모를 심어주고는 늦게 모내기를 하였다. 박첨지의 등너머 논은 모내기가 막판까지 늦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모내기를 하는 박첨지의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마치 사발통문이라도 한 듯이 모여서 모내기를 하였다. 그날은 설운 사람들이 모여 모심기를 하였다. 그날은 논배미가 복새판이 되었다. 그렇게 모여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울분을 달랬던 것이다.

한강에 모를 부어

20) 『선집』, 28쪽.

21) 『선집』, 41쪽.

그 모 찌기도 난감하다.

모야 모야 노랑 모야
너 언제 자라 열음할꼬?²²⁾

집단적인 노동요는 지주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불려졌다. 소작인들이 지주들에게 그들의 울분을 토로하는 방식은 그들만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전부였다. 그것은 한을 같음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소극적인 저항의 한 방식일 것이다.

<수라도(修羅道)>에서는 서사무가 한 도막 나온다. 마을에 신주를 모시고 있는 천금새는 절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가야부인의 은덕을 입고 있는 처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신주상 앞에 앉아서 푸념을 한다.

강남서 나온 무학이 걸령쇠 띄어놓고 팔도강산을 역력히 살펴보니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그 강하나 건너뛰면
남북해동 조선국의 영산대산 오봉이라
수국용왕 노는곳에 터를받은 신씨내외분
대월은 서른날이요, 소월은 이십구일이요
금년은 열두달, 좌우삼백 예순날이 내내돌아 갈지라도
안과태평하게 치성이올시다
미룩이면 미룩이지 무슨죄를 지었건대
도술친 내원궁에 들지를 못하고서
수로만리 떠돌다가 흑간지옥 진흙 속에 생매장이 되었다가²³⁾

천금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푸념섞인 무가를 하다가, 며칠 뒤에는 이와모도 참봉집의 기돛굿을 하게 되는데, 이 노래는 그 뒷풀이 장면

22) 『선집』, 91쪽.

23) 『선집』, 245쪽, 부분 인용.

에 나오는 대목이다. 서사무가는 억눌린 민중들의 한을 풀어주는 이야기 방식의 노래이다. 노동을 하면서 맺힌 한은 노동요로 풀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현실의 울분은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박한 민중들의 저항 정신이기도 하다.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래가 서사무가이다.

<뒷기미나루>에서 박노인이 손자 칠손이가 울면 강으로 나가는데 강물을 보면 울다가도 곧잘 울음을 그친다고 한다. 그래도 안 그치면 자장가 대신 뱃노래를 불러준다.

배 떠난다 배 떠난다
 만경 창과 배 떠난다
 새벽 서리 찬 바람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²⁴⁾

뒷기미 사공아 뱃머리 돌려라
 우리님 오시는 데 마중 갈까나
 아이고 데고 성화가 났네
 뒷기미 나리는 눈물의 나리
 입을랑 보내고 난 어찌 살리노
 아이고 데고 성화가 났네²⁵⁾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간 마누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것은 그의 삶에 질게 배여 있는 애환과 울분일 것이다. 박노인의 뱃노래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불려온 민중들의 노래이다. 이 노래를 통해서 시골 노인들은 술에 취해서 함께 그들의 울분을 달래보는 것이다.

24) 『선집』, 267쪽.

25) 『선집』, 274쪽.

어떨 때 박노인의 늦복을 추켜세우고 이 노래를 청해서 듣기도 한다. 박노인이 이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면 눈뚱부리 영감이 받아친다. 이 구슬픈 노랫가락을 서로 받아치면서 박노인은 손자를 본 기쁨을, 눈뚱부리 영감은 정용에 끌려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슬픔을 달래는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 삶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근대적 삶의 방식이 계급과 계층의 억압이었다면 탈근대적 삶의 방식은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회복이었다. 그런 점에서 소설에 나타난 삽입민요는 탈근대성의 방식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 이동순 <물의 노래>연작시

이동순은 시집 『개밥풀』, 『물의 노래』, 『지금 그리운 사람은』 등의 작품을 통해서 민중들의 삶이 훼손되는데 대한 저항과 비판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산업화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전개되면서 자본가와 무산자와의 갈등은 애초에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산업화가 일정한 궤도에 올랐던 80년대에 집약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중문학이라는 주제 의식이 나타난 것은 이동순의 시집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으며, 80년대 우리 문학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신동엽의 『금강』이 동학농민전쟁을 3·1운동과 4·19를 거쳐 오늘로 이어지는 현재적 사건으로 파악하고, 그 구체적 과정을 민족자주·민중해방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⁶⁾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면, 김용택의 『섬진강』은 과거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작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동순의 <물의 노래> 연작시는 80년대 이농현상과 농촌 문제에 대한 대응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낙동강 상류의 안동지역을 모델로 한 민중문학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26) 백낙청, 『서사시 『금강』을 새로 내며』(신동엽 『금강』, 창작과비평사, 1989) 251쪽.

27) 김용택, 『섬진강』, 창작과비평사, 1985, 발문 참조.

특히, 이동순의 연작시 <물의 노래>²⁸⁾는 이러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²⁹⁾ 안동댐 수몰민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 시 <물의 노래> 연작시는 산업화에 따라 붕괴되는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안동댐은 낙동강 상류 지역의 하나로 이곳은 오랫동안 민중들의 삶의 발판이 되었던 공간이다. 그런데 이 유형의 공간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개발됨으로써 그곳에서 살아가던 농민들은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는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시 <물의 노래>는 시작하고 있다. 이 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과 개발을 둘러싼 폭력에 맞서는 민중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가리
 죽어 물이나 되어서 천천히 돌아가리
 돌아가 고향 하늘에 맺힌 물 되어 흐르며
 예 썼던 우물가 대추나무에도 휘감기리
 살던 집 문고리도 온몸으로 흔들어 보리
 살아생전 영영 돌아가지 못함이라
 오늘도 물가에서 잠긴 언덕 바라보고
 밤마다 꿈을 덮치는 물 꿈에 가위놀리니
 세상사람 우릴 보고 수몰민이라 한다
 옮겨간 낫선 곳에 눈물 뿌려 기심매고
 거친 땅에 솟은 자갈돌 먼 곳으로 던져가며
 다시 살아보려 바둥거리는 깨진 무릎으로

28) 이동순의 시는 1981년 발표 당시 열여섯 편을 기본 텍스트로 한다. 원본 <물의 노래>는 《실천문학》(제2호, 1981)에 실려 있다.

29) 이동순의 시세계는 줄고, 「외유내강의 정신세계-이동순론」(『시와 시학』2003년 겨울호, 통권 52호) 참조할 것. 이 논문에서 이동순의 시세계는 이 글의 일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구석에 서성이던 우리들 노래도 물 속에 묻혔으니
 두 눈 부릅뜨고 소리쳐 불리보아도
 돌아오지 않는 그리움만 나루터에 쌓여갈 뿐
 나는 수몰민, 뿌리채 뽑혀 던져진 사람
 마을아 역센 풀아 무너진 흙담들아
 언젠가 돌아가리라 너희들 물 틈으로
 나 또한 한 많은 물방울 되어 세상길 흘러 흘러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썽이리

- <물의 노래 1>전문

연작시 <물의 노래>모두 열 여섯 편의 독립된 시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독특한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3, 4음수의 반복과 4음보의 탄탄한 울격을 바탕으로 우울한 전통 장례식 장면을 연상하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농촌의 현실을 죽음의 상황으로 치달리고 있으며, 댐 건설로 해서 소중한 삶의 터전의 잃은 그들의 삶이란 본연의 땅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농촌 현실은 이미 자본의 폭력과 권력의 횡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물의 노래> 연작시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수몰민의 비애를 위무하는 따뜻한 사랑의 노래이다. 수몰민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잃어버린 고향 언덕을 바라보면서 살아야하는 것이 개발의 피해를 입은 민중들의 삶이었다. 자본과 권력의 폭력은 식민지 시대나 현대나 변하지 않고 사람들을 압박하는 기제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권력에 맞서는 민중들의 저항의식은 탈근대를 지향하는 민중들의 소망과 다름없는 것이다. 근대의 연속선상에 놓여있었던 해방 후의 상황은 70년대 개발의 붐으로 이어지면서 또다른 양상의 폭력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수많은 개발의 양상은 결국 농민과 도시 근로자들의 수탈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였다.

총독시절 왜놈들이 이상한 자로 땅 재가고
 해방되고도 하이카라들 지도 위에 줄 그어 쐈더니
 아무려면 사람 사는 곳 제맘대로 어찌하려고
 목침 고쳐 베고 좋은 시절 오기만 믿던 착한 사람들
 (……중략……)
 예라, 이놈의 세상 제 갈길로 가려무나
 낮부터 한잔술 걸치고 실컷 푸념이나 돌리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곤한 잠에 빠졌는데
 잠 속에도 큰물이 들어 캉캉깜깜 놀래었더라

- <물의 노래 2>부분

일제시대의 수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두고서도 ‘좋은 시절 오기만 믿던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관청 사람들은 이항위자료를 조금 주고는 댐건설을 강행한다. 땅속의 조상님 유적을 파내어 읊기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도시로 떠났다. 예부터 터를 일구고 살았던 고향땅은 이제 수몰지역이 되어서 안동군 월곡면은 행정구역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그야말로 근대화의 희생양이 되어서 새역사에 동참한 것이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들의 꺾박받는 민중의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쐈이고 쐈인 흙돌 엄청난 돌담이 되는구나
 큰 물 막으면 아랫강 사람들 근대화 바람타고
 모진 장마 칠년 가뭄에도 물 걱정 없어 좋으련만
 내 고향 온통 다 바쳐 이 역사 이루게 한 걸
 행여 그들 짐작은 꿈에라도 알아나 낼까

- <물의 노래 8>부분

70년대 이후 불어닥친 근대화의 물결은 이렇게 물 걱정 없는 마을을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물은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지만, 인간은 이 물을 개발

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자연과 개발이라는 양립불능의 모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자연의 삶이 민중의 삶이라면, 개발의 수단이 권력의 속성이다. 물은 부드럽고, 때론 건조하게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물이 개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또다른 자본의 한 폭력 양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물은 개발의 압제에서 인간들의 삶을 위협하는 죽음과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처럼 물은 삶과 죽음의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³⁰⁾ 이 두 가지 속성은 민중들의 속성이기도 하다. 민중들은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론 역사의 물결을 바꾸는 역동적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중은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³¹⁾ 이동순의 <물의 노래>연작시에 나타난 물의 속성도 죽음과 삶의 이중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수몰민의 상황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수몰민들은 그들의 비극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전망을 보인다.

이 민중들의 소망은 <물의 노래>연작에서 대부분 건강한 민중들의 삶과 연결되어 새로운 전망을 열어 보이고 있다. 시 <물의 노래>연작시는 물의 이중성을 통해서 민중들이 지향하는 삶의 진정성을 소망하고 있다. 이 시는 수몰민들이 물로 인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물의 노래 15>)에서 씻김굿 형식을 취하면서 그들의 한을 위무하고 있다. 이는 그의 시가 물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그 노래의 본바탕에는 민중들의 건강한 삶이 깔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디치는 소리만 철컹철컹 저 홀로 사라지고
웁긴 집 찾아 성큼 들어설 목소리 기다리며

30) 가스똥 바슐라르에 따르면, ‘부드러운 물과 난폭한 물’로 상징되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가스똥 바슐라르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3).

31) 유재천 편, 『민중』문학과지성사, 1984.

오늘 하루 안동포 말아내어 당신 옷을 짓습니다.

- <물의 노래 15>부분

삶이 아무리 따가운들 깊은 가슴 속
몰래 감추인 노래조차 어이 잊을 수 있으리
물이 호령하듯 차갑게 출렁인들
우리네 추억마저 어이 덮을 수 있으리
발 닿은 곳 이 세상 어느 하늘 밑이라도
떠들며 서러운 마음 뿌려 오래 살아보리
(……중략……)
고향 잃고도 꺾이지 않는 물의 노래를 들려줘야지
언젠가 돌아가리라 너희들 물 틈으로
나 또한 한 많은 물방울 되어 세상 길 흘러 흘러
- <물의 노래 16>부분

안동포를 말아서 당신 옷을 지을 수 있는 마음, 삶이 아무리 따갑더라도 깊은 가슴 속에 몰래 감춘 노래를 잊지 않으려는 여유가 그들의 진정성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근대화와 자본의 권력에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삶의 전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물이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면서 자연의 섭리로 다가온다. 고향을 잃고도 꺾이지 않는 ‘물의 노래’는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물의 노래>연작시에서 보인 자연의 파괴와 같은 죽음의 공간인 낙동강은 언젠가는 ‘멀지않아 다가올 쓰린 인과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부정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존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공간이기도 한다. 이 죽음의 상황에 내재된 희망은 새로운 삶의 향한 역설적 선언이기도 하다. 이 시에 나타난 한의 극복과 미래 세대에 대한 건강한 희망의 메시지는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에서 말하는 수몰민의 비극은 다시 이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이기도 하고, 개발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권력자의 폭력에 저항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물의 노래>연작시에서 나타난 민중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은 탈근대성을 지향하는 문학적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근대문학에서 낙동강은 사회구조의 모순을 드러내는 곳이었다. 첨예한 계층의 대립을 가져온 공간, 삶의 터전 확보와 개발의 미명하에 끝없이 투쟁한 공간이었다. 근대 사회의 모순으로부터 비롯하는 왜곡된 권력의 횡포가 자행되고, 그 횡포 속에서 진정한 민중의 공간이 빼앗긴 채, 신음한 공간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부당한 근대적 질서가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그 모순이 심화되었다. 그것이 부당한 것임을 알면서도 묵인되고, 소외당한 계층은 끝없이 소외당하고 만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 근대의 무질서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현대사는 그 갈 길을 잃고 말았고, 이것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있다.

조명희와 김정환의 소설 속에서 낙동강은 소외된 계층의 투쟁 공간이었고, 김용호의 시에서는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채, 표류하는 현재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비극적 공간으로서의 낙동강은 민요에서 민중들의 삶을 풀어내는 또다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요에서 지향하는 집단적인 공간은 낙동강을 둘러싼 탈근대 사회의 모습이었다. 민중들은 근대 사회의 모순을 민요를 통하여 삶의 애환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간을 열어간 것이다. 끝으로 이동순의 <물의 노래> 연작시는 산업화 시대 수몰민의 비극을 통해서 민중들의 새로운 삶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특성은 근대성을 벗어나려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탈근대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근대문학에서 낙동강은 계층적 투쟁의 공간과 민중의 삶의 애환이 서

려있는 공간이었다면, 현대문학에서 낙동강은 질곡의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근대적 사회 계층의 대립으로 빚어진 갈등과 구조적 모순을 넘어서 조화와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명희, 김정환, 김용호, 삼입 민요, 이동순의 시에 나타난 낙동강은 근대성을 극복하고 탈근대성을 획득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 이후로 끝없는 갈등과 투쟁의 현상이었던 낙동강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공간으로 남아 있다. 왜곡된 근대 사회에서 벗어나 탈근대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는 낙동강을 둘러싼 보다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문학 작품이 양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우리 현대문학이 지향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주제어 : 현대문학, 탈근대성, 민중문학, 비극적 세계관, 소외계층

참고문헌

1. 잡지와 신문자료

『MBC 민요대전』, 『삼천리』, 『중외일보』, 『동아일보』, 『조선문단』

2. 논문과 서지자료

강만길, 김광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서울:한길사, 1985.

김정한, 『김정한 소설 선집-증보판』, 서울:창작과비평사, 1983.

김택규, 「경상북도 민요의 문화·사회적 기능」(『한국민요대전』 CD해설
집)

엄형섭, 『한국시사 자료집성 20-시집편』, 서울:태학사, 1983.

김용호, 이설주 편, 『현대시인선집 상』, 서울:문성당, 1954.

조명희, 『낙동강』, 서울:건설출판사, 1946.

민병기, 「포석 조명희 연구」 『사립어문학회 6권』, 1989.

노상래, 「조명희 연구(2)」 『한민족어문학회 23권』, 1993.

조명희, 『낙동강』, 건설출판사, 1946.

권구현, 시 「낙동강의 봄비」 『삼천리』, 1932. 4.

양우정, 시 「낙동강」 『조선문단』, 1935. 5.

이기영, 「포석(抱石) 조명희(趙明熙)론-그의 저 <낙동강>의 재간에 제
하여」 『중외일보』, 1946. 5.28-29.

엄형섭, 『한국시사자료집성 20-시집편』, 서울:태학사, 1983.

윤민재,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서울:사회문화연구소, 2000.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서울:문예출판사, 1998.

박승희, 『한국시와 근대풍경』, 대구:문예미학사, 2002.

문홍술, 『작가와 탈근대성』, 서울:깊은샘,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Post-Modernity of the Literature of Nakdong River

Hwang, Seon-Yeol

Nakdong river in the modern literature is the place which reveals the contradiction of the social structure. This place also brings the keen confrontation of opposite classes. In addition, this is the headquarter of lives and endless conflicts under the pretense of development. The distorted oppression of power, resulting from the contradiction of the modern society, has its own way in this area. And this is the sorrowful space in which the real space of the people has been taken away from the inside oppression.

The contradiction becomes profounder because the unjust modern order and doctrine of the Japanese occupation by force has been connected until now. Everyone knows that this is unfair, but nobody tells this officially. And the isolated class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indifferent social environment in this place. Because of the continuance of the modern chaos condition, our contemporary history lose its path, which has been the unsolvable problem.

Nakdong river in the novels of Jo, Myeong-Hui and Kim, Jeong-Han is the fighting space and in the poetry of Kim, Yong-Ho, this is the floating contemporary space which keeps picturesque past recollection. Nakdong river as a tragic place puts down its root as another place in which the lives of the people are sung through the

Folk Song[Minyo]. The collective lives shown into the Folk Song are the vestige of the post-modernity society surrounding Nakdong river. The people overcome the contradiction of the modern society through the Folk Song and open a new life space.

Finally, the sequential poem 'A Song of Water' written by Lee, Dong-Soon shows a new life prospect of the people through the submerged districts in the industrialized age. This feature shows the direction which has a tendency to deviate from the modernity. And this intend to the post-modernity.

Since the modern age, Nakdong river has been the place of endless conflicts, and fighting and remains as an alternative new place. In the contemporary age in which people overcome the distorted modern society and intend to the post-modernity, literary texts surrounding Nakdong river which are more adventurous and active should be produced. Also, this is another task which our modern literature should intend to.

Key Words : modern literature, the post-modernity, the people literature, tragic view of the world, the isolated class